

6世紀의 倭와 韓半島諸國

佐藤 信

【國文抄錄】

서론 —새로운 6세기의 日韓關係史를 향하여—

I. 加耶史研究의 新展開

II. 磐井의 전쟁과 동아시아

1. 倭의 五王에서 6세기의 倭王權으로

(1) 倭의 五王의 歷史的 背景

(2) 倭의 五王

2. 磐井의 전쟁

3. 倭의 大王과 地方豪族

III. 倭의 佛教受容과 동아시아

1. 百濟에서 倭로의 ‘佛教公傳’

2. 倭의 佛教受容과 동아시아

3. 蘇我氏의 佛教受容과 飛鳥寺造營

4. 大王家의 佛教受容

IV. 漢字文化의 受容과 韓半島諸國·倭

V. 古代의 ‘大臣外交’

맺음말을 대신하여

【參考文獻】

【報告一覽】

【國文抄錄】

6世紀의 倭와 韓半島諸國

佐藤 信

6세기의 한반도에 위치하였던 高句麗·百濟·新羅 三國과 加耶, 그리고 殊羅 등의諸國과 日本列島에 있었던 倭 사이에 전개되었던 交通의 역사는 다양하게 再檢討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獨善的인 自民族 중심·一國 중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또 근대 國民國家의 구조 틀을 무리하게 前近代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中國과 그 주변 諸國들을 포함한 東아시아 전체적인 視點에서 多元的·雙方向의 인 교류의 역사를 客觀的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중앙집권적인 統一國家가 확립되기 이전 시기에서는 日本列島 각지의 地方豪族

들의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大王權力 쪽에서도 政權中樞에 있는 中央의 有力豪族들의 동향에 주의하고 싶다. 6세기에는, 倭의 大王은 아직 日本列島에 있어서 후대 日本律令國家 차원의 一元의인 중앙집권 지배를 확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三國이 대항하는 한반도에 있어서도 一元의인 중앙집권 지배가 반드시 완성되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大王·國王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자립하는 존재였던 地方豪族들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6세기적인 동아시아 交流史의 역사적 특징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

《日本書紀》繼體紀에 보이는 築紫國造 築紫君 磐井과의 전쟁은 6세기 초에 九州의 地方豪族이 스스로의 王國 형성을 지향하여 大王權力에 대항한 싸움이었다. 磐井은 新羅와 교류하면서 高句麗·百濟·新羅·加耶 등 諸國과의 外交權을 일시 독점하고, 築紫·火·豐 지역에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大王과의 관계가 同盟에서 從屬으로 이행하는 것에 저항하였다. 中央의 有力豪族인 物部麁鹿火가 大將軍으로서 파견되어 해를 넘기는 격전 끝에 磐井를 제압하고 北九州 땅에는 王權 칙할의 屯倉이 설치되었다. 《筑後國風土記》와 古墳의 조사를 통하여, 磐井의 무덤인 岩戸山古墳에 보이는 政權構造와 그것을 중심으로 한 五~六世紀의 石人·石馬文化가 磐井의 势力圈과 접친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어, 考古學的으로도 磐井의 전쟁을 뒷받침할 수가 있다.

6세기의 倭의 佛教 수용에 관해서는, 隋·唐과 百濟·高句麗·新羅 등 東아시아 諸國間의 국제 정세와 日本列島의 국내정세 양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百濟聖明王에 의하여 倭로 불교가 ‘公傳’된 연대는 538년이라고 하는 사료와 552년이라고 하는 사료 두 계통의 사료가 있다. 百濟에서 倭로의 ‘佛教公傳’의 배경에는, 高句麗·百濟·新羅 三國間의 긴박한 정세 속에 처한 百濟聖王代의 위기가 존재하였다. ‘佛教公傳’의 해로 되어 있는 兩年은, 538년은 高句麗 세력의 남하 압력을 받은 百濟가 熊津에서 洗沘로 천도한 해에 해당하고 552년(《三國史記》는 553년으로 되어 있음)은 中國과의 교류의 거점이 되는 漢城 지역을 新羅가 百濟로부터 빼앗은 시기에 해당한다. 高句麗·新羅로부터의 壓力에 대항하기 위해 倭와의 接近을 도모하는 百濟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倭에 대한 ‘불교 공전’의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하겠다.

古代 東아시아의 국가간 외교에서는 외교 교섭은 皇帝와 國王 사이에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執政大臣들이 외교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 ‘大臣外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6세기의 倭의 외교에서도 大伴氏에서 物部氏, 그리고 蘇我氏에게로 외교를 담당하는 中央의 有力豪族의 변천이 있었다. 中央集權의 통일 국가 단계 이전의 大王·王의 시대에 있어서 一元性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政權構造의 존재 방식과, 외교를 담당한 有力豪族의 존재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으면 6세기대의 東아시아 국제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서론－새로운 6세기의 日韓關係史를 향하여

6세기에 한반도에 위치한 高句麗·百濟·新羅 삼국과 加耶 그리고 殇羅 등의 諸國과 일본열도에 위치한 왜 사이에 전개된 역사적인 교통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여러 가지로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현대 세계가 글로벌화하여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대에도 경계를 넘는 다양한 교류가 풍부하게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명백히 분석됨에 따라, 고대 동아시아의 제국 간의 관계사도 새롭게 인식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서는 독선적인 자민족중심주의나 일국중심주의의 입장이 아닌, 또 근대 국민국가의 틀과 시점을 무비판적으로 前근대에까지 적용시키지 않고 중국이나 그 주변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적인 넓은 시야에서 교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아직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가 확립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일본열도 각지의 지방 호족들의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왕권의 구조에 있어서도 유력 왕족 대신 혹은 정권 중추의 유력호족(貴族)들의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倭(日本) 뿐만 아니라 高句麗·百濟·新羅 같은 韓半島諸國에도 해당될 것이다. 6세기의 왜의 大王은 아직 일본열도에서 나중의 일본율령국가 같은 일원적인 중앙집권지배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고, 三國이 대항하며 존재하고 있던 한반도에서도 高句麗·百濟·新羅 등의 삼국 외에 加耶·耽羅 등을 포함한 일원적인 중앙집권 지배가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大王·國王에 대해 아직 상대적으로 자립한 존재였던 지방호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6세기적인 동아시아 교류사의 역사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I. 加耶史研究의 新展開

근래 한국이나 일본에서 加耶史研究가 큰 성과를 올리며 새로운 진전을 보게 된 데는 加耶 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가 급속히 이루어진 데에 이유가 있다. 그 발굴 조사 성과에 의해 이전에는 720년에 편찬된 『日本書紀』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加耶의 국가형성 역사가 보다 객관적인 전망을 갖게 되었다. 또 '大王'銘을 새긴

土器나 銘文을 가진 刀劍의 출현 등의 새로운 出土文字資料의 발견에 의해서도, 가야 지역의 독자적인 역사적 전개가 새로운 시점으로 조립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전개는 가야나 가야를 둘러싼 高句麗·百濟·新羅·倭의 관계에 대해 가장 상세한 기술을 전하는 《日本書紀》諸記事의 해석을 둘러싼 제설의 난립이 반복되는 상황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任那日本府'의 실태나 《日本書紀》의 한반도 남부 지명의 비정 등에 대해서는 《日本書紀》라는 한정적인 사료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대립되는 여러 가지 설이 연구자 각자의 입장에서 제출되고, 각각의 해석이 엇갈릴 뿐 '결론이 나지 않는 논의'의 상황이 이어져, 결실이 있는 논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小國聯合의 성격이 지적되어 온 가야('加耶聯盟') 제국의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결과의 축적(加耶의 고지인 洛東江流域의 예를 들면 金海市의 大成洞古墳群, 咸安郡의 末伊山古墳群, 陜川郡의 玉田古墳群, 釜山市의 福泉洞古墳群 그리고 高靈의 池山洞古墳群 등의 發掘調査)에 의해 加耶의 小國聯合의 실태나 왕권의 발전, 그리고 국가형성에의 역사과정에 대해 《日本書紀》의 해석과는 다른 계통의 사료비판을 가능케 하는客觀的인 정보와 指標를 얻게 되어 가야의 역사상을 한층 구체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원래 《日本書紀》記事의 해석으로 한정된 '결론이 나지 않는 논의'라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日本書紀》記事의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성과와 대조시킨 종합적인 역사상의 재구성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한반도 남부의 榮山江流域에서 발견된 前方後圓墳의 존재를 百濟·加耶와 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도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日本書紀》繼體 6年(512)條에는倭의 '官家'(미야케)가 각지에 설치된 지역이라는 '任那國의 上哆唎·下哆唎·婆陀·牟婁, 四縣'을, 요청에 따라 백제에 '割讓'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다시 재검토하는데 榮山江流域의 前方後圓墳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高句麗의 남하의 압력을 받은 백제가 韓半島 南西部의 全羅南道地域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在地勢力이나 加耶·倭와의 다원적인 관계 속에 어떻게 왜의 묘제의 특징을 갖는 前方後圓墳이 조영되었는지 고고학적인 견해를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발견한 木簡 등의 出土文字資料도 《日本書紀》의 사료 비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韓國 慶尙南道 咸安의 城山山城에서는 6세기에 신라가 가야를 합병하고 진출했던 시기의 木簡群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出土

文字資料에 의해 6세기의 한반도 제국과 왜를 둘러싼 새로운 志向의 연구 테마로서 종래의 정치사의 틀을 넘어 동아시아에서의 한자문화의 전개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결론이 나지 않는 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좁은 정치사의 틀을 넘어 동아시아에서의 불교의 전개와 같은 문화사의 테마도, 이제는 사원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향의 역사 연구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日本書紀』뿐 아니라 出土文字資料나 발굴조사 성과 등, 다양한 입장의 연구자들이 서로 검증할 수 있는 공통의 재료를 수반한 연구가 금후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II. 磐井의 전쟁과 동아시아

1.倭의 五王에서 6세기의 왜왕권으로

1)倭의 五王의 歷史的 背景

5~6세기의 동아시아에서 일본열도의 역사를 살펴볼 때, 『日本書紀』繼體 21年(527) 6月 甲午條, 同年 8月 辛卯朔條, 22年(528) 11月 甲子條, 同年 12月條에 기재된 ‘筑紫國造 磐井’의 大王에 대한 ‘叛逆’ 사건은 매우 흥미롭다. 『日本書紀』에서는 8세기 초의 日本 古代國家의 사관이라는 관점으로부터 ‘賊帥’로 되어 있는 筑紫君 磐井이지만, 폐자인 磐井의 입장에서 전투의 양상을 검토하고 나서 새로이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 前부터, 『日本書紀』의 사료 비판의 입장에서, 전승이 윤색되었을 가능성에 강조하는 견해가 강하였는데(津田左右吉·坂本太郎·三品彰英), 전후에는 왜 왕권의 한반도 출병에 의한 동원과 부담에 대한 九州 지방의 호족, 민중의 저항(藤間生大·林屋辰三郎·門脇禎二)이나 屯倉制 지배에 따른 지방관료화에 대한 지방호족의 저항(小田富士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후, 일본열도에서 엄밀한 의미의 ‘古代國家’가 형성되는 것은 6세기이후로 된다는 견해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가에 대한 ‘反亂’이 아니고 국가 형성기의 大王과 王 사이의 전쟁이었다는 점이 지적되기 에 이르렀다(鬼頭清明·吉田晶). 이와이(磐井)의 전쟁을 계기로 大王의 계보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설도 있다(山尾幸久).埼玉古墳群 稲荷山古墳(埼玉縣 行田市)에

서 출토된 鐵劍銘에 의해 와카타케루 大王(倭王武·雄略天皇) 시대인 5세기 후반에 왜왕권에 의한 영역의 확대 양상이 알려지자 大王 권력의 전제적 확대와 왜왕권의 연합정권적 성격에서 집권적 성격으로의 변화의 구체성이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井上光貞·長山泰孝). 磐井의 전쟁은 일본열도의 국가 형성과정에서 왜왕권의 대왕권력과 지방호족과의 관계 뿐 아니라 왜왕권과 지방호족 각자가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깊은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열도의 국가형성에 영향을 미친 국제적 계기를 재검토해보자 한다.

九州의 筑紫(나중의 筑前[福岡縣北部]·筑後[福岡縣南部])·火(나중의 肥前[佐賀縣]·肥後[熊本縣])·豊(나중의 豊前[福岡縣東部]·豊後[大分縣])의 諸國에 세력을 뻗친 磐井은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각국과도 적극적으로 대외교섭을 행하며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열도에서의 고대국가 형성사를 생각할 때, 繙內의 大王 권력에 의한 국가형성에의 흐름을 一元的·先天的인 것으로서 前提로 삼기보다, 지방호족들에 의한 국가형성에의 흐름까지도 시야에 넣고 複線的·多元的으로 일본열도의 고대사 像을 복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磐井의 전쟁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일본열도에서의 大王 권력에 의한 영역 확대 및 지방 편성의 전전이나, 그것과 對峙한 각지의 지방호족들의 동향에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관점은 일본의 고대국가의 형성에 국제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石母田正의 견해(1971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에도 대응되는 것이다.

2) 倭의 五王

磐井의 전쟁에 이르는 전제로서 5~6세기 동아시아의 역사 동향을 정리해 보겠다. 韓半島에서는 高句麗가 국력을 신장시켜 수도를 丸都에서 平壤으로 옮겨 세력을 남하시키자, 그에 대응하여 百濟는 漢城에서 475년에 熊津으로 南遷(그 뒤 扶餘로 遷都)하여 세력을 남하시킨다. 『日本書紀』에 보이듯이 百濟가 512년(繼體 6)에 上哆唎·下哆唎·婆陀·牟婁를, 513년에 己卯·帶沙를 세력 하에 두게 된 것은 (『日本書紀』에는 '하사'로 表記) 이에 대응한 사건이었다. 또 新羅의 세력 확장까지도 겹쳐 倭와 協調關係에 있던 한반도 남부 加耶에서의 왕권 형성의 움직임은 백제 신라에 의해 압박을 받게 되었다. 6세기에는 급속하게 국력을 강화시킨 신라가 532년에 金官國을 병합하고 562년에는 드디어 대가야를 멸망시키기에 이른다. 6세기의 한반도 남부는 커다란 격동의 와중에 있었다.

일본열도에서는 畿內의 大王權力を 대표하는 ‘倭의 五王’이 중국 남조에 조공하고 황제로부터 將軍號 등을 받음으로써, 韓半島나 日本列島에서 자기 지위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물론, 高句麗·百濟·新羅諸國도 마찬가지로 中國의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 대외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였다. 《宋書》(梁의 沈約[~513]의 撰) 夷蠻傳倭國條에 의하면 讚·珍·濟·興·武의 다섯 명의 倭國王이 南朝皇帝에게 조공하고 자신의 장군 칭호와 함께 僉屬들의 장군 칭호까지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들 長군호는 韓半島에서의 대외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과 동시에 日本列島 내에서 중앙호족들을 편성할 때에도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珍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安東將軍倭國王

倭隋 등 十三人에게 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號를 받기를 청하고 허락을 받는다.

濟 (443년)→安東將軍倭國王

(451년)→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

興(462년)→安東將軍倭國王

武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478년)→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

武는 드디어 大將軍號를 얻는 데 성공하지만, 南朝의 宋(420~479) 자신이 다음해인 479년에는 멸망해 버린다.

《宋書》夷蠻傳倭國條에 기재된 倭王 武의 上表文은 이 시대의 왜의 정세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順帝昇明二年(478), 遣使上表曰, “封國偏遠, 作藩于外. 自昔祖禡, 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違寧處. 東征毛人, 五十五國, 西服衆夷, 六十六國, 渡平海北, 九十五國. 王道融泰, 廓土遐畿, 累葉朝宗, 不愆于歲. 臣雖下愚, 忝胤先緒, 驅率所統, 歸崇天極, 道遙百濟, 裝治船舫, 而句麗無道, 圖欲見吞, 掠抄邊隸, 虐劉不已, 每致稽滯, 以失良風. 雖曰進路, 或通或不. 臣亡考濟, 實忿寇讐壅塞天路, 控弦百萬, 義聲感激, 方欲大舉, 奄喪父兄, 使垂成之功不獲一簣, 居在諒闈, 不動兵甲, 是以偃息未捷, 至今欲練甲治兵, 申父兄之志, 義士虎賁, 文武効功, 白刃交前, 亦所不顧. 若以帝德覆載, 催此彊敵, 克靖方難, 無替前功, 竊自假開府儀同三司, 其餘咸假授, 以勸忠節.” 詔除武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

이 왜왕 武는 《古事記》(712년)에 ‘大長谷若建命’, 《日本書紀》(720년)에 ‘大泊瀨

幼武'로서 '와카타케루'라는 이름으로 전해졌고 나중에 漢式謚號로 '雄略天皇'으로 불리는 대왕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연히도 關東地方과 큐슈지방에서 출토된 금석문인 埼玉古墳群 稲荷山古墳(埼玉縣 行田市) 출토의 鐵劍銘이나 熊本縣 江田船山古墳(熊本縣 菊水町) 출토의 鐵刀銘에 기재된 '獲加多支齒(와카타케루)大王'이 동시대 사료에 기재된 그 이름으로 생각된다.

埼玉古墳群稻荷山古墳(埼玉縣行田市)出土鐵劍銘 辛亥年銘(471年說)

(表)辛亥年七月 中記 乎獲居臣 上祖名意富比塊 其兒多加利足尼 其兒名弓已加利獲居
其兒名多加披次獲居 其兒名多沙鬼獲居 其兒名半弓比
(裏)其兒名加差披余 其兒名乎獲居臣 世々爲杖刀人首 奉事來至今 獲加多支齒大王寺
在斯鬼宮時 吾左治天下 令作此百練利刀 記吾奉事根原也

熊本縣江田船山古墳(熊本縣菊水町)出土鐵刀銘

台天下獲□□□齒大王世 奉事典曹人名无利弓 八月中 用大鐵釜 幷四尺廷刀 八十練
□十振 三寸上好□刀 服此刀者 長壽 子孫洋々 得□恩也 不失其所統 作刀者名伊太□
書者張安也

鐵劍銘·鐵刀銘 둘 다 똑같은 용어와 어휘를 쓰고, 大王의 치세를 '杖刀人'(武官) 또는 '典曹人'(文官)으로서 대대로 '奉事' 또는 '左治天下'한 것으로 기록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不失其所統'을 할 목적으로 銘文刀劍이 기능했다고 추측된다. 이렇게 와카타케루 대왕 즉 倭王 武의 시대에 畿內의 大王 권력은 지방호족을 지배 하에 포섭하면서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호족들은 大王 권력과의 관계를 동맹관계에서 점차 종속관계로 이행해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내의 대왕 권력도 507년에 大伴金村에 의해 北陸에서 繼體天皇을 받아들여 옹립하는 등 충분히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6세기 사이에 畿內 호족의 최대세력도 大伴씨에서 物部氏로 그리고 蘇我씨로 점차 이행해 갔다.

2. 磐井의 전쟁

筑紫國造 筑紫君 磐井(《古事記》에는 '筑紫君 石井')의 전쟁은 《日本書紀》의 繼體 21年(527) 6月條,同年 8月 辛卯朔條, 22年(528) 11月條,同年 12月條에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日本書紀》繼體 21年(527) 6月條

近江毛野臣，率衆六萬，欲往任那，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喙已吞，而合任那。於是，筑紫國造磐井，陰謀叛逆，猶預經年。恐事難成，恒伺間隙。新羅知是，密行貨賂于磐井所，而勸防遏毛野臣軍。於是，磐井掩據火·豐二國，勿使修貢。外邀海路，誘致高麗·百濟·新羅·任那等國年貢職船，內遮遣任那毛野臣軍，亂語揚言曰，“今爲使者，昔爲吾伴，摩肩触肘，共器同食。安得率爾爲使，俾余自伏爾前。”遂戰而不受。驕而自矜。是以，毛野臣，乃見防遏，中途掩滯。(繼體)天皇詔大伴大連金村·物部大連麤鹿火·許勢大臣男人等曰，“筑紫磐井反掩，有西戎之地。今誰可將者。”大伴大連等僉曰，“正直仁勇通於兵事，今無出於麤鹿火右。”天皇曰，“可。”

同年 8月 辛卯朔條

詔曰，“咨，大連，惟茲磐井弗率。汝徂征。”物部麤鹿火大連，再拜言，“嗟，夫磐井西戎之奸猾。負川阻而不庭。憑山峻而稱亂。敗德反道。侮慢自賢。在昔道臣，爰及室屋，助帝而罰。拯民塗炭，彼此一時。唯天所贊，臣恒所重。能不恭伐。”詔曰，“良將之軍也，施恩推惠，恕已治人。攻如河決，戰如風發。”重詔曰，“大將民之司命。社稷存亡，於是乎在。曷哉。恭行天罰。”(繼體)天皇親操斧鉞，授大連曰，“長門以東朕制之。筑紫以西汝制之。專行賞罰。勿煩頻奏。”

繼體 22年(528) 11月條

大將軍物部大連麤鹿火，親與賊帥磐井，交戰於筑紫御井郡。旗鼓相望，埃塵相接。決機兩陣之間，不避萬死之地。遂斬磐井，果定疆場。

同年 11月條

筑紫君葛子，恐坐父誅，獻糟屋屯倉，求贖死罪。

위의 사료로부터는 新羅와 교류하며 高句麗·百濟·新羅·加耶 등의 諸國과의 외교권을 독점한 것(大王權力으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과 筑紫(筑前·筑後), 火(肥前·肥後), 豊(豊前·豊後)에 그 세력을 뻗치고 있던 점, 磐井이 예전의 동료였던 大王의 사신 近江毛野臣에 대해 臣從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점, 즉 大王과의 관계가 동맹에서 종속으로 이행하는 것에 저항한 점, 국가적 위기에 대해 대왕 권력이 대장군으로서 가장 유력한 중앙호족의 한 인물인 物部大連 麤鹿火를 파견하여 큐슈지역의 지배권을 위임하는 필사적인 체제로 磐井을 제압하려 한 점, 그리고 2년을 넘는 격전 끝에 겨우 磐井이 제압되고 북큐슈 지역에 왕권의 직할령인 糟屋屯倉이 설치된 점 등을 살펴볼 수 있다. 糟屋屯倉은 博多灣에 면한 福岡縣 糟屋郡의 지역이고 磐井의 대외교류의 거점이었다고 생각되며, 거기에 屯倉이 설치된 것은九州의 호족연합을 누르고 왜의 대왕 권력이 외교권을 장악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糟屋屯倉의 기능은 나중에 那津官家로 계승된다. 大宰府의 전신으로 밀해지는 那津官家는 대규모 倉庫群이 늘어서 있는 比惠遺跡(福岡市 博多區)으로 비정되며 博多灣에 면한 海上交通의 요충이다.

그런데 磐井의 무덤에 관해서는 다음의 《筑後國風土記》 逸文과 古墳의 현재 모습에 의해 福岡縣 八女市의 八女古墳群 중의 큰 前方後圓墳(周堤를 포함하여 총 길이 약 180미터)인 岩戸山古墳이 그것이라고 확실시되고 있다. 피장자를 알 수 있는 고분의 드문 예 중의 하나이다.

《筑後國風土記》 逸文(《釋日本紀》 卷13)

筑後國風土記曰, 上妻縣々南二里, 有筑紫君磐井之墳墓, 高七丈, 周六十丈. 墓田南北各六十丈, 東西各卅丈. 石人・石盾各六十枚, 交陣成行, 周匝四面. 當東北角, 有一別區. 號曰衙頭[衙頭, 政所也]. 其中有一石人, 縱容立地. 號曰解部. 前有一人, 裸形伏地. 號曰偷人[生爲偷猪, 仍擬決罪]. 側有石猪四頭, 號贓物[贓物, 盜物也]. 彼處亦有石馬三疋・石殿三間・石藏二間. 古老傳云, “當雄大迹天皇(繼體)之世, 筑紫君磐井, 豪強暴虐, 不偃皇風. 平生之時, 預造此墓. 俄而官軍動發, 欲襲之間, 知勢不勝, 獨自遁于豐前國上膳縣, 終于南山峻嶺之曲. 於是, 官軍追尋失蹤. 土怒未泄, 撃折石人之手, 打墜石馬之頭.” 古老傳云, “上妻縣, 多有篤疾, 蓋由茲歟.”

8세기 초엽 각 지방에서 편찬된 《風土記》 가운데 古老들이 전하는 2백 년 전 磐井의 전쟁의 기억이 실려져 있다. 磐井이 생전에 조영한 고분(壽陵)으로 《風土記》에 명시된 규모는 주위 170미터의 岩戸山古墳과 그대로 일치하며, 한 변이 50미터인 방형의 구획인 ‘別區’도 현존하고 또 石人・石馬・石楯・石豬 등이 많이 남아있는 등, 《筑後國風土記》의 逸文과 岩戸山古墳은 놀랍게도 일치한다.

九州의 지방 사람들 사이에는 磐井이 豊前國의 山中으로 도망가 살아남았다고 전해지는 것도 흥미로우나, 여기에서는 別區에서 보이는 磐井의 왕권에 주목하고 싶다. 이 別區의 모습에 의하면, 磐井은 강대한 군사력, 재판권, 정치와 의례의場인 훌륭한 궁전, 그리고倉庫群으로 상징되는 재정력을 갖고九州 각지의 호족이나 민중들을 정신적으로 결집시켰던 것은 아닐까.九州의 고분 문화의 遺物面에서의 특징으로서 石人・石馬文化圈이, 바로 磐井의 지반이었던 筑紫・火・豊의 범위에 퍼져있던 것을 알 수 있는 바이다. 물론 磐井과 倭의 大王權力 사이에 어느 정도 종속적 성격을 가진 동맹관계가 존재한 것은 岩戸山古墳이 前方後圓形을 취하고 있는 점 등으로부터 엿볼 수 있지만, 磐井의 전쟁에서 대외관계의 장악을 꾀하는 자세 등에서 筑紫・火・豊 지역을 대표하는 호족으로서 “相對的 自立性을 가진 政治權力”(鬼頭清明, 1975 <日本民族の形成と國際的契機> 《大系日本國家史 1 古代》 東京大學出版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磐井은 대외관계에서만이 아니고 列島 내의 대왕 권력이나 타지방의 지방호

족들과의 관계라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 외교권, 군사권, 재판권, 정치·의례, 재정권 등의 권능을 집약하여, 이른바 九州의 왕국과 왕권 형성의 길에 이르고 있었다고 지적 할 수 있다. 그러한 磐井의 움직임이야말로 倭王權의 위기감을 증폭시켰던 것이다.

3.倭의 大王과 地方豪族

大王을 대표하는 倭왕권에 의한 日本列島(本州·九州·四國) 각지로의 세력진출 과정에서는, 그 외에도 지방호족과의 사이에 전쟁이나 마찰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흔적은 《日本書紀》의 雄略紀에서 清寧紀에 걸쳐 보이는 吉備氏의 반란과 관계있는 '星川皇子의 反亂'이나 安閑天皇 元年 閏12月條에 보이는 '武藏國造의 反亂'과 같은 '反亂 傳承'에서 볼 수가 있다. '武藏國造의 反亂'의 경우는 武藏國造 笠原直使主가 大王權力과 결합된 데 대해 笠原直使主의 동족인 小杵는 東國의 지방호족의 영웅이었던 毛野氏의 上毛野君小熊를 의지하여 대립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싸움에 승리한 大王權力 측은 南武藏이나 上野地方에 직할령으로서屯倉을 설치했던 것이다. 地方豪族들은 6세기에는 國造制라는 형태로 大王權力 안으로 포섭되어 간다.

그리고 이러한 '反亂의 時代'가 끝난 뒤인 7세기에는 《隋書》 東夷傳 倭國條에 보이듯이 지방제도가 점차로 형성되어 가게 되었다.

《隋書》東夷傳 倭國條

有軍尼一百二十人。猶中國牧宰。八十戶置一伊尼翼。如今里長也。十伊尼翼屬一軍尼。

大王과 中央豪族·地方豪族과의 관계는, 아직 大王(오키미)과 王·君(키미)이라는 규모의 대소 관계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것이었으나, 大王이 막강한 권위·권력을 확립하여 天皇(스메라미코토)으로 되어 가는 것이 7세기 후반의 단계였다. 大王에서 天皇으로의 변화이며, 律令國家의 형성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III. 倭의 佛教受容과 동아시아

1. 百濟에서倭로의 ‘佛教公傳’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서의 왜의 불교 수용에 초점을 맞춰, 隋·唐이나 百濟·高句麗·新羅 등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제국 간에서 전개된 국제정세와 일본열도의 국내정세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百濟의 聖明王에 의해倭에 불교가 ‘公傳’된 연대에 대해서는 538년(欽明 7년) 戊午라는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 《上宮聖德法王帝說》과, 552년(欽明 13년)壬申이라는 《日本書紀》의 두 계통의 사료가 있다.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 《上宮聖德法王帝說》에 ‘佛教公傳’했다고 보이는 ‘欽明 7年’ 戊午年(538)은 《日本書紀》 편년으로는 欽明이 아니고 宣化 3년에 해당되며, 戊午年(538)=‘欽明 7年’이라면 欽明은 41년에 걸쳐 존립한 것이 된다. 한편 《日本書紀》의 ‘佛教公傳’ 欽明 13年(552·壬申)說에 의하면 欽明은 32년 간 재위한 것에 그친다. 이 두 사료 간의 연대의 차이를 둘러싸고 戊午年도壬申年도 革命說에 의한 起源說話이며 《日本書紀》의 기년에 대해서는 欽明이 즉위한 후에 欽明의 王조와 安閑·宣化의 王조가 대립하여 병존했다는 설(喜田貞吉·林屋辰三郎)이 있다.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

大倭國佛法，創自斯歸鳴宮治天下國案春岐廣庭天皇(欽明)御世，蘇我大臣稻目宿禰仕奉時，治天下七年歲次戊午(538)，《日本書紀》宣化天皇 3)十二月度來。百濟國聖明王時，太子像并灌佛之器一具，及說佛起書卷一箇度而言，“當聞，佛法既是世間無上之法，其國亦應修行也。”時天皇，受而諸臣等告“此自他國送度之物，可用耶不用耶，善計可白”告支。時餘臣等告，“我等國者，天社國社一百八神，一所禮奉。我等國神御心恐故，他國神不可禮拜”止白岐。但蘇我大臣稻目宿禰獨白“他國爲貴物者，我等國亦爲貴可宜”止白岐。爾時天皇，即大臣告“何處置可禮。”大臣白，“大々王(推古天皇)後宮分，奉禮流家定坐可宜”止白岐。時天王，召大大王告，“汝牟原後宮者，我欲爲他國神宮也。”時大々王白，“大佛心依佐賀利奉”白岐。時其殿坐而禮始。…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

丈六光銘曰，天皇(欽明)名廣庭，在斯歸斯麻宮時，百濟明王上啓，“臣聞，所謂佛法既是世間無上之法，天皇亦應修行，擎奉佛像經教法師。”天皇詔巷奇名伊奈米大臣，修行茲法，故佛法始建大倭。…

《上官聖德法王帝說》

志癸嶋天皇(欽明)御世, 戊午年(538, 《日本書紀》宣化天皇 3)十月十二日, 百濟國主明王, 始奉度佛像經教并僧等. 劅授蘇我稻目宿禰大臣令興隆也.

《日本書紀》欽明 13年(552·壬申) 10月條

○冬十月, 百濟聖明王, [更名 聖王.] 遣西部姬氏達率怒咧斯致契等, 獻釋迦佛金銅像一軀·幡蓋若干·經論若干卷·別表, 讚流通禮拜功德云, “是法於諸法中, 最為殊勝. 難解難入. 周公·孔子, 尚不能知. 此法能生無量無邊福德果報, 乃至成辦無上菩提. 譬如人懷隨意寶, 遂所須用, 盡依情, 此妙法寶亦復然. 祈願依情, 無所乏. 且夫遠自天竺, 爰渥泊三韓, 依教奉持, 無不尊敬. 由是, 百濟王臣明, 謹遣陪臣怒咧斯致契, 奉傳帝國, 流通畿內. 果佛所記我法東流.” 是日, 天皇聞已, 歡喜踊躍, 詔使者云, “朕從昔來, 未曾得聞如是微妙之法. 然朕不自決.” 乃歷問群臣曰, “西蕃獻佛相貌端嚴, 全未會有. 可禮以不?” 蘇我大臣稻目宿禰奏曰, “西蕃諸國, 一皆禮之. 豐秋日本, 豈獨背也.” 物部大連尾輿·中臣連鎌子, 同奏曰, “我國家之王天下者, 恒以天地社稷百八十神, 春夏秋冬, 祭拜爲事. 方今改拜蕃神, 恐致國神之怒.” 天皇(欽明)曰, “宜付情願人稻目宿禰, 試令禮拜.” 大臣跪受而忻悅, 安置小墾田家. 憨修出世業爲因. 淨捨向原家爲寺. 於後, 國行疫氣, 民致夭殘. 久而愈多. 不能治療. 物部大連尾輿·中臣連鎌子, 同奏曰, “昔日不須臣計, 致斯病死. 今不遠而復, 必當有慶. 宜早投棄, 懇求後福.” 天皇曰, “依奏.” 有司乃以佛像, 流棄難波堀江. 復縱火於伽藍, 燒燼更無餘. 於是, 天無風雲, 忽災大殿. ◎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 <地名, 未詳.>

최근에는 ‘佛教公傳’ 538年說을 취하는 연구자가 많은 듯하나, 일본열도에서는 원래 5세기부터 渡來系氏族과 渡來人の 도래라는 상황 속에서 佛教受容體制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佛教公傳’은 넓은 의미에서의 渡來系氏族·渡來人에 의한 佛教受容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公傳’된 불교를 둘러싸고 大王이 단독으로는 결정하지 못하고 ‘群臣’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한다. 그 결과 왜왕권의 중앙유력 호족들 사이에 수용파인 蘇我稻目과 반대파인 物部尾輿·中臣鎌子들의 대립이 발생한 것이다.

2.倭의 佛教受容과 동아시아

6세기에倭로의 ‘佛教公傳’의 배경에는 韓半島의 高句麗·百濟·新羅 삼국의 긴박한 역사전개의 과정에서 백제 聖王代의 위기가 존재하였다. 국가적인 ‘佛教公傳’의 해를 538년으로 하든 552년이라 하든 간에 538년은 高句麗 세력 南下의 압력을 받은 백제가 熊津(公州)에서 泗沘(扶餘)로 천도한 시기이며, 552년은(《日本書紀》에 의하면

552년, 《三國史記》에는 553년) 중국과의 교류 거점인 한성 지역을 신라가 백제로부터 쟁탈한 시기에 해당한다. 高句麗 · 新羅로부터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왜와의 접근을 시도하는 가운데, 백제측으로부터 왜로의 ‘佛教公傳’이 적극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史記》 538年

百濟聖王十六年春, 移都於泗沘[一名所夫里]. 國號南扶餘.

《三國史記》 553年

新羅真興王十四年七月條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浪武力爲軍主.

百濟聖王三十一年七月條 新羅取東北鄙, 置新州.

불교가 백제로부터 왜에 국가적으로 전해지는 전체로서, 5세기 이후 계속된 高句麗의 세력 남하와 그에 대응한 백제의 수도와 관도의 남하라는 한반도의 정세가 있었다. 또 百濟 · 新羅에 의한 가야로의 세력진출에 의해 국력을 강화시켜 온 신라가 百濟를 대신해 한성지역으로의 진출을 이루는 등 百濟 · 加耶 · 高句麗 · 新羅 등의 제국 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어 제국과 왜와의 정치적 · 문화적 외교 교류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蘇我馬子가 敏達 13년(584)에 佛像을 봉헌하기 위해 승려를 각지에서 구했던 바, 播磨國(兵庫縣)에서 환속해 있던 高句麗 승려 惠便을 발견해 이후 馬子의 불교의 승으로 맞이했다는 기사가 《日本書紀》에 보인다. 6세기의 일본열도 각지의 사회에는, 이러한 형태로 한반도 諸國로부터의 승려들이 불교를 전하면서 침투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日本書紀》 敏達 13年(584) 是歲條

是歲, 蘇我馬子宿禰, 請其佛像二軀, 乃遣鞍部村主司馬達等 · 池邊直水田, 使於四方, 訪覓修行者. 於是, 唯於播磨國, 得僧還俗者. 名高麗惠便. 大臣乃以爲師.

3. 蘇我氏의 佛教受容과 飛鳥寺造營

蘇我氏는 東漢氏 등 渡來系族을 끌어들여 결속하면서 왕권의 재정을 담당하여 세력을 신장해 온 씨족이고, 선진 문명으로서의 불교를 수용하는 입장에 섰다. 587년 (用明 2), 불교수용파인 蘇我馬子 등은 불교 반대파인 유력 중앙 호족인 物部守屋 등

을 멸망시키고 (蘇我·物部戰爭), 蘇我氏가 왜의 왕권 내에서 정치적 권세를 장악하게 된다.

588년(崇峻 元)부터 蘇我馬子는 飛鳥寺(法興寺)를 조영하기 시작한다. 왜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가람을 가진 이 사원의 조영에는 백제로부터의 승려나 기술자들이 협력하여 596년(推古 4) 11월에 완성하였다. 완성된 飛鳥寺에는 왜의 불교의 동향으로서, 高句麗 승려 慧慈와 백제 승려 慧聰이 체류하였다. 605년(推古 13)에 鞍作鳥에 丈六銅像을 만들 때에는 高句麗王으로부터 황금의 선물이 있었고 다음해 완성하여 飛鳥寺 金堂에 안치되었다.(‘飛鳥大佛’).

《日本書紀》 崇峻 元年(588) 是歲條

◎是歲，百濟國遣使并僧惠總·令斤·惠寔等，獻佛舍利。百濟國遣恩率首信·德率蓋文·那率福富味身等，進調并獻佛舍利，僧聰照律師·令威·惠衆·惠宿·道嚴·令開等，寺工太良未太·文賈古子，鑪盤博士將德白昧淳，瓦博士麻奈文奴·陽貴文·倭貴文·昔麻帝禰，畫工白加。蘇我馬子宿禰，請百濟僧等，問受戒之法。以善信尼等，付百濟國使恩率首信等，發遣學問。壞飛鳥衣縫造祖樹葉之家，始作法興寺(飛鳥寺)。此地名飛鳥真神原。亦名飛鳥苦田。

《日本書紀》 崇峻 3年(590) 10月條

○冬十月，入山取寺材。

《日本書紀》 崇峻 5年(592) 12條

◎是月，起大法興寺(飛鳥寺)佛堂與步廊。

《日本書紀》 推古 元年(593) 正月條

元年春正月壬寅朔丙辰，以佛舍利，置于法興寺刹柱礎中。○丁巳，建刹柱。

《日本書紀》 推古 2年(594) 2月條

二年春二月丙寅朔，詔皇太子(厩戸王，聖德太子)及大臣(蘇我馬子)，令興隆三寶。是時，諸臣連等，各爲君親之恩，競造佛舍。即是謂寺焉。

《日本書紀》 推古 3年(595) 5月條

五月戊午朔丁卯，高麗僧慧慈歸化。則皇太子(厩戸王，聖德太子)師之。◎是歲，百濟僧慧聰來之。此兩僧，弘演佛教，並爲三寶之棟梁。

《日本書紀》 推古 4年(596) 11月條

四年冬十一月，法興寺造竟。則以大臣(蘇我馬子)男善德臣拜寺司。是日慧慈·慧聰，二僧，始住於法寺興寺。

《日本書紀》 推古 13年(605) 4月條

十三年夏四月辛酉朔，天皇詔皇太子大臣及諸王諸臣，共同發誓願，以始造銅繡丈六佛像，各一軀。乃命鞍作鳥，爲造佛之工。是時，高麗國大興王(嬰陽王)，聞日本國天皇造佛像，貢上黃金三百兩。

《日本書紀》 推古 14年(606) 4月條·5月條

十四年夏四月乙酉朔壬辰，銅繡丈六佛像並造竟。是日也，丈六銅像坐於元興寺(飛鳥寺)金堂。時佛像，高於金堂戶，以不得納堂。於是，諸工人等議曰，破堂戶而納之。然鞍作鳥之秀工，不壞戶得入堂。即日，設齋。於是，會集人衆，不可勝數。自是年初每寺，四月八日七月十五日設齋。

그 후에도 한반도에서 서로攻防하던百濟·高句麗·新羅 등으로부터 때때로 왜에
승려가 파견되거나 도래하여 불교를 전했다.

百濟로부터 왜로의 불교 전래

『日本書紀』推古 10年(602) 10月條

冬十月，百濟僧觀勒來之。仍貢曆本及天文地理書，并遁甲方術之書也。是時，選書生三四人，以俾學習於觀勒矣。陽胡史祖玉陳習曆法。大友村主高聰學天文遁甲，山背臣日立學方術。皆學以成業。

『日本書紀』推古 32年(624) 4月條

戊午，詔曰，夫道人尙犯法，何以誨俗人。故自今已後，任僧正僧都，仍應檢校僧尼。壬戌，以觀勒僧爲僧正。以鞍部德積爲僧都。即日，以阿曇連<闕名>爲法頭。

高句麗에서 왜로의 불교 전래

『日本書紀』推古 10年(602) 閏10月條

潤十月乙亥朔己丑，高麗僧々隆·雲聰，共來歸。

『日本書紀』推古 18年(610) 3月條

十八年春三月，高麗王貢上僧曇徵·法定。曇徵知五經。且能作彩色及紙墨，并造硯硯。蓋造硯硯，始於是時歟。

『日本書紀』推古 33年(625) 正月條

卅三年春正月壬申朔戊寅，高麗王貢僧惠灌。仍任僧正。

新羅에서 왜로의 불교 전래

『日本書紀』推古 31年(623) 7月條

卅一年秋七月，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任那遣達率奈末智，並來朝。仍貢佛像一具及金塔并舍利。且大觀頂幡一具·小幡十二條。即佛像居於葛野秦寺(廣隆寺)。以餘舍利金塔觀頂幡等，皆納于四天王寺。是時，大唐學問者僧惠齋·惠光·及醫惠日·福因等，並從智洗爾等來之。於是，惠日等共奏聞曰，“留于唐國學者，皆學以成業。應喚。且其大唐國者，法式備定之珍

國也。常須達。"

6세기 말 중국 수·당제국의 발흥과 수·당의 고구려 원정의 시작은 한반도제국이나 왜국에 지대한 국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긴장된 국제정세 속에 국가적 집중이 과제가 되는 가운데, 韓半島 諸國과倭와의 사이에는 국가적 외교나 교류로서 불교의 전파와 수용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蘇我氏의 권세 하에 왜의 중앙호족들 사이에는 飛鳥佛教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갔다.

4. 大王家의 佛教受容

舒明天皇은 639년(舒明 11)에 百濟大宮과 百濟大寺를 조영했는데 최근에 발굴 조사된 7세기 전반의 吉備池廢寺(奈良縣 櫻井市)는 바로 百濟大寺에 해당한다고 한다. 吉備池廢寺는 飛鳥寺를 능가하는 규모이고, 거대한 王權의 사찰(大寺)의 존재는 7세기의 飛鳥佛教史나 정치사에서 蘇我氏와 大王家와의 관계에 대해 재고를 요구한다.

《日本書紀》 舒明 11年(639) 7月條 · 12月條

秋七月，詔曰，今年，造作大宮及大寺。則以百濟川側爲宮處。是以，西民造宮，東民作寺。便以書直縣爲大匠。

十二月 ◎是月，於百濟川側，建九重塔。

吉備池廢寺의 금당은 37m×25m의 대규모 건물이고, 탑의 기단은 한 변이 32m의方形이며, 기단 높이 2.8m의 거대 규모로서, 心礎石의 규모로 보아 9층탑으로 추정된다. 탑의 규모는 동시기의 신라의 皇龍寺(韓國 慶州)와 비견되며 奈良時代의 東大寺 7층탑을 능가한다. 王權에 의한 국가적인 大寺의 실현이 왜와 신라에 공통했다고 할 수 있다.

왜의 불교수용은 동아시아와 조선반도의 隋·唐·百濟·高句麗·新羅 등의 제국의 국제관계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그들 국가들과의 외교 교류와 일본열도의 국내 정세의 동향 등이 얹힌 가운데 실현되었다. 그리고 蘇我氏나 大王(天皇)家를 비롯해 왜의 중앙 호족 나아가 지방호족들은 매우 급속하게 불교를 수용하고 있었다.

IV. 漢字文化의 受容과 韓半島諸國·倭

고대 일본열도에서의 한자문화의 수용과 한자에 의한 일본어 표기의 전개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漢字文化의 수용에 관한 사료로서는 기원전 1세기 경에 왜인의 소국이 漢의 樂浪郡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사가 《漢書》에 보인다. 야요이(彌生)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일본열도 각지의 유적으로부터는, 王莽의 ‘貨泉’(漢字銘이 쓰인 銅製의 錢貨)이 출토되고 있다. 57年에는倭의 奴國王이 ‘漢委奴國王’銘의 金印을 後漢의 光武帝로부터 받고 있고 107年에도倭國王이 後漢에 조공하고 있다(《後漢書》). 239年에는 邪馬臺國의 女王 히미코(卑彌呼)가 魏에 遣使하여 ‘親魏倭王’의 칭호 등을 얻고 있다. 일본열도 각지의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 이른바 ‘三角緣神獸鏡’에는 ‘景初三年’(239年) 등의 銘文이 보이며 그 외에도 3~5세기에 걸쳐 銅鏡이나 刀劍에 새겨진 銘文이 알려지고 있다.

倭 측에서 쓴 것으로는 舶載鏡을 흉내 낸 傀製鏡에 한자의 銘文이 기호처럼 자주 나오나, 한자를 기호로 인식한 공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된다. 본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宋書》東夷傳에 실린倭王 武의 上表文이나 千葉縣市原市稻荷臺1號墳에서 출토된 철검과埼玉縣行田市埼玉古墳群의 稲荷山古墳에서 출토된 철검 등 5세기의 도검 명문이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토기에 문자와 같이 보이는 묵서의 예가 3세기 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나, 그러한 사례는 기호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한자문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古事記》에는 4세기 후반의 應神天皇 시대에 百濟에서 건너온 和邇吉師(《日本書紀》에서는 王仁)가 《論語》·《千字文》을 전했다고 되어 있다. 이 和邇吉師(王仁)는倭 왕권에서 문서행정을 담당했던 河內의 文首(書首)氏族의 조상으로 되어 있다. 5세기에 韓半島에서 많은 도래인들이 일본열도로 건너와 그 일부는 한자문화를 전하고 왜왕권의 기록 사무에 종사하였다고 추정된다. 왜국의 왕권에서 외교 문필에 종사한 ‘후미히토’들은 東漢氏·西文氏와 같은 도래계 씨족이 많았다. 5세기의 ‘倭의 五王’이 王號·將軍號를 얻으려 中國南朝로 파견된 뒤, 6세기에는倭國과 중국과의 직접 국교는 보이지 않으나, 불교가 백제왕으로부터倭國에 ‘公傳’되거나 蘇我馬子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가람을 갖춘 飛鳥寺를 건립할 때에 백제로부터 도래한 기술자들이 중심이 되었듯이, 승려 기술자 등과 같이 왕명이나 그 외의 일로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선진적인 문화가 전해졌다. 위에서 언급한 《日本書紀》敏

達 13年(584) 是歲條의 播磨國(兵庫縣)에 환속한 고구려 승려 惠便이 살고 있었다는 기사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6세기 후반에는 大王權力의 주변만이 아니라 일본열도의 각지에서 도래인을 맞이하고 있고, 특히 지방호족들은 도래인들로부터 선진문화를 흡수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최근에 한국 함안군의 城山山城跡에서 출토되고 있는 다수의 木簡群은 6세기대의 신라 목간으로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출토문자 자료이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되고 있는 7세기부터의 목간군의 존재형태에 제작기법이나 書式, 書風, 사용법 등의 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매우 흥미를 끄는 바이다. 이들 새로운 목간의 출토로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목간의 書寫 방법과 이용체계라는 한자문화가 어떻게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에 전해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6세기 말에 수가 중국을 통일하고(589년) 고구려 원정(598~614년)을 시작하자 동아시아제국은 격동의 시기를 맞게 되었고, 7세기 초의 鹿戶王(聖德太子)과 蘇我馬子의 외교에 의해 왜국은 다시 중국과의 국교를 열어 견수사를 파견하게 된다. 607년에는 遣隋使 小野妹子가 수나라로 건너갔다. 이 시기의 왜국의 귀족들은 鹿戶王이 고구려 승려 慧慈나 백제에서 온 박사 覺哿에게 배웠듯이 도래승인 道顯(道賢)과 가까운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다.(《藤氏家傳》上卷 鎌足傳 · 貞慧傳). 藤原鎌足이 맏아들 貞慧를 승려로 만들어 唐에까지 보낸 것은 이 시대 귀족의 대외관과 승려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승려는 선진지식을 몸에 익힌 존재인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존재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 후 7세기에는 귀국한 유학생과 유학승들이 많은 선진문화를 전한 외에도, 나당 연합군에 의해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3년에는 白村江 전투에서 왜군과 백제부 흥군이 대패하고 이어서 668년에는 고구려가 멸망하는 격동의 시기에 많은 도래인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도망해 온 것을 받아, 많은 문화적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도래인 중심이나 지방호족뿐 아니라 광범위한 왜의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한자문화가 확대된 것은 7세기 후반이劃期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古事記》(712년) · 《日本書紀》(720년)와 같은 문헌사료가 만들어지는 것은 8세기이후이지만 그 이전의 7세기에도 많은 금석문이나 목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古事記》序에서 太安萬侶는

“上古之時，言意並朴，敷文構句，於字卽難。已因訓述者，詞不逮心。全以音連者，事趣更長。是以，今，或一句之中，交用音訓，或一事之內，全以訓錄。”

이라 하여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곤란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일본의 한자문화의 수용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러한 곤란함이 수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일본열도 각지의 유적에서 출토된 7세기의 목간에 의해 왜의 지방호족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자문화, 유교, 불교 등 동아시아의 선진 문화를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호족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고대 일본의 율령국가가 7세기 후반의 단기간에 중앙집권적인 관료조직을 정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대의 일본열도에서는 중앙귀족뿐 아니라 지방호족까지도 선진적인 외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다. 일본의 율령국가 확립과정에는 국가의식의 昂揚과 함께 귀족 사이에 ‘小中華意識’이 확대되는 한편, 우수한 외국문화를 배타적으로 배제하는 일 없이, 기대를 받으면서 중국대륙이나 한반도로 건너간 사람들도 많았다. 또한 도래해 온 사람들을 異端視하지 않고 대하는 사회적 기반도 일본의 고대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V. 古代의 ‘大臣外交’

동아시아 고대의 국가간의 외교관계에서 外交交涉이 황제나 國王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執政大臣들에 의해 외교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 ‘大臣外交’가 구체적이며 편의적인 외교의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확실한 동아시아의 외교관계 사료를 얻을 수 있는 7~8세기의 사료군에 의해 古代外交의 실정을 파악하고 거슬러 올라가 6세기代의 외교관계 사료를 사료비판하는 방법을 취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倭·日本의 ‘大臣外交’의 실례로서 藤原鎌足·大友皇子·大津皇子·藤原不比等·長屋王·藤原仲麻呂들에 의한 외교 관여를 알 수 있고, 일본 율령 가운데 大寶令에서도 外交事務인 ‘朝聘’이 左大臣의 업무로 간주되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신라에서는 金春秋의 예나 ‘上宰’, ‘執政’에 의한 외교의 존재, 그리고 高句麗의 泉蓋蘇文의 예 등, 고대의 동아시아제국에서 ‘大臣外交’가 기능을 발휘한 양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6세기倭의 외교에 대해서도, 大伴氏로부터 物部氏 그리고 蘇我氏로 이어지는 외교를 담당한 중앙의 유력호족(‘大臣’·‘大連’)의 변천이 보인다.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단계 이전의 大王·王의 시대에 일원성이 확립되지 않은 정권구조와 외교를 담당한 유력호족(‘大臣’)의 존재를 정확히 평가하지 않

고서 6世紀代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한다.

맺음말을 대신하여

東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와 교류라는 국제적 계기가 일본열도의 고대국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石母田正의 지적(1970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은 日本古代史研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인 교류는 일방통행이 아닌 雙方向의인 것이며, 다원적인 국제관계와 교류 가운데 古代 東아시아 제국의 역사가 전개된 것임을 확인하고 싶다. 또 각 국가도 원래부터 일원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가로서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방호족의 역사적 전개를 국가형성사 속에서 다원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参考文献】

- 石母田正, 1971 『日本の古代國家』(岩波書店)
- 沖森卓也・佐藤 信・矢嶋泉, 1999 『藤氏家傳 鎌足・貞慧・武智麻呂傳 注釋と研究』(吉川弘文館)
- 小田富士雄編, 1985 『石人石馬』(學生社)
- 小田富士雄編, 1991 『古代を考える 磐井の亂』(吉川弘文館)
- 佐藤信, 1997 <古代の“大臣外交”についての一考察> 『境界の日本史』(山川出版社)
- 佐藤信編, 2002 『律令國家と天平文化』(日本の時代史4, 吉川弘文館)
- 佐藤信, 2002 『出土史料の古代史』(東京大學出版會)
- 篠川賢, 2001 『大王と地方豪族』(日本史リブレット, 山川出版社)
- 奈良文化財研究所, 2003 『大和吉備池廢寺－百濟大寺跡－』(吉川弘文館)

【報告一覽】

佐藤 信 韓日歷史共同研究委員會 第一分科會에서의 보고 일람

I 磐井의 전쟁과 동아시아(大阪歷史博物館에서 2003年 4月 19日)

들어가는 말

一. 倭의 五王

二. 磐井의 전쟁

三. 大王과 地方豪族

맺음말

II 7세기의 일본열도의 외국문화의 수용(國立金海博物館에서 2003年 6月 21日)

序言

1. 渡來僧과 倭國의 귀족

2. 留學生 · 留學僧의 귀국

3. 百濟로부터의 망명귀족

4. 日本의 지방호족과 동아시아

5. 長屋王 · 聖武天皇과 동아시아

結語

III 東아시아와 일본의 고대도시(國立大邱博物館에서 2003年 10月 18日)

서연 - 東아시아 고대도시의 도시성 -

1 古代 동아시아의 도성

1. 1 中國의 都城

1. 2 朝鮮의 都城

1. 3 渤海의 都城

2 古代日本의 宮都

2. 1 藤原京

2. 2 平城京

3 東아시아 고대도시의 도시성

3. 1 王權과 首都

3. 2 都城과 儀禮 · 對稱性

- 3. 3 都市와 宗教
- 3. 4 都市의 계층성
- 3. 5 도시와 유통경제
- 3. 6 도시민의 형성

맺음말

IV 倭의 불교수용과 동아시아(國立光州博物館에서 2004年 2月 22日)

서언

- 一 百濟에서 왜로의 ‘佛教公傳’
 - 1. 百濟·聖明王에 의한 왜로의 ‘佛教公傳’
 - 2. 倭의 불교 수용과 동아시아
- 二 百濟·加耶를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와 왜
- 三 倭의 국내정세와 불교수용
 - 1. 蘇我氏의 佛教受容
 - 2. 蘇我·物部戰爭
 - 3. 飛鳥寺(法興寺)의 조영과 蘇我馬子
- 四 飛鳥불교와 동아시아
- 五 大王(天皇)家의 불교수용

맺음말

V 六世紀의 韓半島三國과 왜에 대하여(奈良縣 公會堂에서 2004年 4月 10日)

머리말

- 一. 加耶史를 둘러싸고
- 二. 磐井의 전쟁과 동아시아
 - 1. 倭의 五王
 - 2. 磐井의 전쟁
 - 3. 大王과 地方豪族
- 三. 倭의 佛教受容과 동아시아
 - 1. 百濟에서 倭로의 ‘佛教公傳’
 - (1) 百濟·聖明王에 의한 倭로의 ‘佛教公傳’
 - (2) 倭의 佛教受容과 東아시아
 - 2. 百濟·加耶를 둘러싼 朝鮮半島의 정세와 倭

- 3.倭의國內情勢와佛教受容
 - (1)蘇我氏의佛教受容
 - (2)蘇我·物部戰爭
 - (3)飛鳥寺(法興寺)의造營과蘇我馬子
- 4.飛鳥佛教와동아시아
- 5.大王(天皇)家의佛教受容
- 四.漢字文化의수용과朝鮮三國·倭
- 五.‘大臣外交’

맺음말

VI 六世紀의韓半島三國과倭(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2004年 6月 3日)

머리말 -새로운 6세기의 日韓關係史를 향하여-

- 1.加耶史研究의新展開
- 2.磐井의전쟁과동아시아
 - 1.'倭의五王'에서六世紀의倭王權으로
 - 2.筑紫君磐井의전쟁
 - 3.大王과地方豪族
- 3.倭의佛教受容과동아시아
 - 1.百濟에서倭로의‘佛教公傳’
 - 2.朝鮮半島의情勢와倭
 - 3.蘇我氏의불교수용과飛鳥寺造營
 - 4.大王(天皇)家의佛教受容
- 4.漢字文化의受容朝鮮三國·倭
- 5.古代의‘大臣外交’

맺음말